

예배 및 모임안내

2019-27호 2019년 07월 07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1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4	07. 21	07. 28
대 표 기 도	문정현 집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문정현 집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헌 금 위 원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유미경 집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마21~28장, 막1~9장)
2. 브레멘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3. 육체의 심과 영성 회복을 위한 방학과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4. 고국 방문 - 유미영 집사(김진솔, 지나) - 7월 8일
5. 나눔의 시간 -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천막집회(8월 30일(금)~9월15일(주일))를 위하여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새 교우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찬 송 Gemeindelied 4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54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66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18 : 1- 8(신 p126) 임현석 형제
(Lukas 18:1-8)
- 설 교 Predigt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69장 다같이
- 성찬예식 Abendmahl 마26:26~30, 228장(2,4절)..... 담임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유미경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28:15)”

라디오와 TV가 꺼져 버린 온 집안은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생명력이 있는 어떤 것이 떠나버린 것 같이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전기 제품들이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을 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음에 아주 익숙해있어서 소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드시는 역동적인 차이점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A. W. Tozer 목사님은 야곱의 인식부족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당연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둔화되었습니까? 오늘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마음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약속 365가지